‘초상입자’ 그것은 이면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일반적인 물리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일으키는 입자들을 총칭한다. 초상입자들은 우주단위 개척 활동에 핵심 요소이며, 전 우주에 여려 형태로 퍼져있다.

2027년 John. M. Jeol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 IMSR(international material science research)에서 기존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자연입자를 발견 ‘JMJ-KDY407’라 명명하여 국제사회에 발표

2027년 같은 연구소에서 ‘JMJ-KDY407 입자가 초자연적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가 국제 학술지에 개제, 일반 대중에게 ‘마나입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며 연구의 진위여부,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John. M. Jeol 박사는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것이 인류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연구가 될것이라 선언

2028년 John. M. Jeol 박사, JMJ-KDY407 입자를 이용한 초 자연적 현상 재현에 성공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으며 연구가속화

~채택되면 세부사항 정리함

JMJ-KDY407 입자에 대한 기술개발과 협약문제로 국제사회의 트러블 -> 세계 3차전쟁 발발 -> 대부분의 기술이 싸우는 쪽으로 발달함 ->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상처에서 다시 일어난 인간들은 평화와 화합의 이름아래 범 지구적 협력체 ‘지구연합’을 출범시키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

이후 지구는 ‘마나입자’를 활용한 마법의 시대를 맞이한다. ‘개화’ 활동을 통해 체내에 마법입자를 ‘마나’로 변환하여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법을 사용한 도구, 마법이 활용되는 직장 등 이제 마법은 인간 생활에서는 땔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은하연방정부는 지난 세월 무분별한 플랜트 개척에 따른 난개발, 우주오염, 인권문제에 봉착했다. 이는 개척 행성에 토착 생명체가 존재할 경우 ‘어디까지 지적생명체로 분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아래와 같은 우주법이 제정되었다.

탐색활동중 항성계단위에 생명활동이 감지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항성계를 그린벨트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토착 생명체와 일체의 접촉활동을 금지한다. 이 후 이들 스스로 성간협약체와 접촉을 시도할 경우 이들을 지석생명체로 분류하고 교섭을 시작한다. 단, 토착 생명체들이 초상입자를 발견 한 뒤 토착 생명체들의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한 3개 세대의 단위시간동안 성간협약체와 접촉할 수준까지 기술력을 갖추기 못했을 경우, 이들을 미생물로 분류하고 그린벨트를 해제, 최초 발견한 연방구에 은하연방정부의 감사활동 아래 해당 항성체에 대한 개발활동을 허가한다.

2267년 지구의 경우 3차 초상입자를 발견한 뒤 3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기술만 발전하여 우주기술의 발전이 지체됨 그 동안 은하연방정부의 그린벨트 유예기간이 끝나버리고 은하연방정부의 침공이 시작됨 그러나 우주환경단체의 대규모 시위로 공권력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원활(?)한 지구인들의 퇴거를 위한 뒷 공작으로 우주용역들이 투입된다….

주인공은 개화에 성공한 신인류로,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를 거부할 수준의 마나 보유량으로 주목을 받으며 마법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형편없는 수준의 마나 운용능력으로 만년 낙제생으로 지내다가 마법학교를 자퇴하게된다. 주인공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기초중의 기초마법인 좌표계 소환마법

이후 은하연방정부의 침공이 시작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마법은 하나도 없음에도 기준치 이상의 마나량을 바탕으로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마법부대에 편성된다.

지구연합은 마법사 부대에 전투에 필요한 다양한 보급품을 지급했으나 마법사들에게 화력과 연결된 무기들은 필요가 없었기에 식량과 마법을 보조하는 장구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부대 보급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결심한 주인공은 자신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환마법을 이용하여 창고에 방치되어있는 무기들을 소환하여 전장에 나선다. 과연 주인공은 살아남아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